

광양은 도시재생 배우기 '열공중'

도시재생대학 다음달 말까지 운영...주민 참여 기반 다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를 배운다. 광양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광양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이명규 교수인을 학장으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꾸렸다.

시는 도시재생대학의 첫걸음으로 지난 달 30일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명규 학장과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항집 지도교수 등 도시재생대학 운영진과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강의와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를 초빙해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사례'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 나선 전광섭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국토교통부 기금투자 심의위원, LH 기술 심사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지난달 30일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방향과 사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부처협업사업의 발굴, 기금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시는 도시재생대학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광영동과 태인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각각 분임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민과 공무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

고 도시재생의 이해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2차 강의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도시재생대학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참여의 기반을 다지고,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생대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산업 발굴 나서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발굴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

광양시는 지난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역 차원의 지능정보화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기회 창출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아이템 발굴과 특화를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 육성과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정보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보문화콘텐츠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전남도 출현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정보통신 문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지역기반 구축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누구나 1인 제조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광양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년 창고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용 드론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협력해

입 협력주신을 위한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의 문화산업 및 ICT기술 육성을 위한 든든한 협력자가 생겼다"며 "양 기관의 역량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시가 풍요로운 삶과 편리한 생활, 재미있는 일상, 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환상의 무지개다리

다음달까지 야간경관 조명 설치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무지개다리' <사진>에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이 입혀진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무지개다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무지개다리'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와 이순신대교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돼 길이 300m, 폭 4m 규모로 건립해 지난 해 6월 정식 개통했다.

무지개 다리에 경관 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광양의 전통과 문화, 자연, 산업, 역사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는 3회, 휴일에는 5회씩 5분간 야간 조명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0년까지 160억 원을 투자해 김호대교~금호대교 해변 9.4km구간에 달빛광장, 삼화섬수변공원, 아이언테마로드 등 수변공간을 활

용한 볼거리와 놀 거리, 쉴 거리 등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희 광양시 수질환경팀장은 "이번 무지개다리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 물이 설치되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무지개다리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여수~순천 광역시내버스 무료 환승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광양~여수~순천 광역시내버스 무료 환승이 실시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3개 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올 해 1월 1일부터

'광양~여수~순천 광역시내버스'를 운행해 오고 있다.

협의회는 이 광역시내버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무료환승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방식은 기존의 하차대고 방식과 동일하다.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체크한 후 60분 이내에 환승할 경

우 광양, 여수, 순천 시내버스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대중교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무료환승 시행일에 맞춰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도 운영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시 올해도 65가구에 '사랑의 보따리'

햇살나눔 푸드마켓 통해 전달

광양시가 햇살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및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등 어려운 가정에서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하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0가구에 이어 올해는 65가구를 선정해 기업들로부터 후원 받은 물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보따리를 햇살나눔 푸드마켓으로부터 매월 전달받고 있다.

대상자별로는 맞춤형 복지사들이 관리하는 중점 통합사례 관리가구가 20가정이며 광양읍·중마동 맞춤형 복지팀과 시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서 각각 10

가정이다. 광영동·옥곡면·진상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각각 5가정을 지원한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들은 전달받은 사랑의 보따리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생활의 불편함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받은 한 가정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이렇게 매월 꼬박꼬박 정적인 후원품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 큰 선물을 받은 거 같아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이재은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가정을 접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고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9월 광양읍과 옥곡면 광영동 등 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차량 3대를 지원한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중마동과 진상면에 2대를 지원하는 등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고 PREMIUM

-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 송정시장
-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